

보도설명자료 (19. 9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상 추진중이고,
관계부처·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보다
강화하겠습니다 (서울경제 9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상 추진중이고, 관계부처·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'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
- ◇ 9월 25일 서울경제, <정부·지자체 떠밀기 행정, 수소충전소 또 무산될 판>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서울 양천구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고, 대안부지인 탄천 물재생센터도 토사처리 문제로 인한 서울시·민간 사업자간 이견이 있어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차질
-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안이 없어, '22년 수소충전소 누적 310기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상 추진중임

- 당초 추진된 양천 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은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버스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면적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, 지자체와 사업자 간 합의 하에 탄천 물재생센터로 부지를 변경하였음
- 현재, 탄천 수소충전소 구축은 민간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부지 점용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중이고,
 -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토사처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중임
- '19.12월에 상일충전소, '20년 상반기에 탄천 및 강서충전소가 완공되면, 서울시에는 기존 3곳(상암, 양재, 국회)에 더하여 총 6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임

□ 관계부처·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, '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

- 현재 전국에서 총 30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인데, 향후 관계부처·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사전에 수소충전소 대상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며,
- 수소충전소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, '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 장(044-203-5390)
박성수 사무관(044-203-5398)
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박륜민 과 장(044-201-6880)
함지범 사무관(044-201-6887)